

신방학도 보고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도서정가제>를 통해 본 여론의 실체

‘찬반여론에 감춰진

진실’ ...

최 근 헌원루리닝 수장호 의원은 비롯한 국회의원 23명이 반
의한 ‘출판권인쇄중립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계기로 도서
정가제 문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인
터넷 여론조사에선 다수가 도서정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
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 의견과 대부분의 인터넷 게시물이 10
대 후반에서 20대에 젊은 네티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 이러한 일부 전이어나 집단운동, 괴령자 등을 비롯한 실
체 참여할 기회가 없거나 적고,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30대
대에 걸까까 수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내지 않는다.

인터넷에 나타난 도서정가제 찬반여론 역시 여론을 언
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럴 가운데
난공대 신문방송학과 출판 공부인 권오명(재신남경) 씨가 내
세한 것이니 지난 2003년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도
서정가제>가 최근 저술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씨가 적시하
고 명한 인터넷의 도서정가제 법제화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누르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특장적인 것은 네티즌이 어
른 실정적 공간에 있었던 것이라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부
분의 이어 지는 어는 의의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도서정가제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인터
넷상에 여론(찬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한 그 여론(찬성)
이 어떤 형식으로 표출되었으며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주 분석대상은 2003년 당시 한국서점조합연합
회 게시판, 문화관광부 게시판, 국회 문광위 심재권 의원 게시판
등이다. 이는 최근 도서정가제 반대가 우세한 온라인 여론의 허

와 실을 적시하고, 그 속성과 실체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도서
정가제> 내용을 발췌·소개한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찬반
론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도서정가제의 법제화가 처음으로 나
온 1999년에서 2000년 초에는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의 토
론방에서 열띤 찬·반론이 오갔다. 그러다가 인터넷의 대중화와
인터넷 서점의 급속한 성장으로 일정한 공간이 아닌 인터넷상
어디에서나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특정사안에 대한 인터넷 상 의견형성 및 그 영향력

인터넷 상에서 반대론 의견은 찬성론 의견보다 압도적
으로 많다. 이는 네티즌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10대 후반부
터 20대, 30대 초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온라인에서 운영
되고 있는 인터넷 서점이 의견형성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
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도서정가제 찬
·반론 투표를 하는 공간개설, 도서정가제 법제화가 거론되는 동
시에 인터넷 서점의 회원들에게 E-mail 발송, 회원들을 중심으
로 온라인 서명운동 등 우선 온라인에 있다는 유리한 점을 잘 살
려 전개해 나갔다.

인터넷 서점이 도서정가제 반대 의견 형성에 있어서 가
장 돋보이는 부분은 도서정가제를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홈페이지

지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네티즌의 반대 의견을 도서정가제 법제화와 관련 있는 고위층에 직접 전달되도록 한 것이다. 네티즌 90퍼센트 정도가 반대론에 찬성을 했고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이루어진 몇천 장의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에 비해 찬성 의견은 인터넷상에서 반대론 의견에 못 미쳤다. 이는 찬성론자들이 인터넷 주이용자인 반대론자보다 인터넷에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은 주로 일부 문화관광부와 출판업계 서점업체다. 이들은 인터넷 서점이 인터넷 공간을 쉽게 확보하는 데 비해 매우 어렵게 인터넷 공간을 확보했다.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라는 오프라인 서점들의 모임이 도서정가제 법제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인터넷 공간에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서련은 좀 늦은 감이 있고 반대 의견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도서정가제 홍보, 사이버토론회 등을 사업계획 제1순위로 내세우면서 인터넷 상에 적극 참여를 도모했다. 이런 노력은 인터넷에서 소외되었던 오프라인 서점(중·서점)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도서정가제 찬·반론 의견 형성은 특정 집단의 주도 하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네티즌들이 특정 집단의 전선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은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한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문화관광부와 심재권 의원 등의 게시판에 의견을 형성하였고 찬성론자들은 한국

서련을 통해서 의견을 형성했다. 또한 두 개의 상반된 의견 형성 공간에서 일관적인 한쪽 의견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찬·반 의견이 골고루 섞여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게시판의 토론장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의견이 형성된

각 사이트 게시판 분석

1)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게시판 분석

한국서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 279건과 도서정가제 시행 후 문제가 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의견 86건이 올라와 있다. 주로 도서정가제 찬성의견들이 올라와 있으며 참여자들은 전국의 서점 대표나 관련 종사자들이고 그 중 젊은 서점 사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연령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시행 후부터는 반대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표 1](#) 참조

도서정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서련 홈페이지의 찬반 의견 대립은 가면 갈수록 뜨거워졌다. 한국서련 게시판의 핵심적인 논객을 뽑으려면 '서점인님'이다. 서점인님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도서정가제 찬성입장에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가장 충실히 답변했다. 그리고 서점인님은 도서정가제, 마일리지문제 등 객관적인 사실정보 제공은 물론 한국서련측이 답변해야 할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있다.

둘째, 서점인님이 핵심적인 논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에 있다. 서점인님은 한국서련의 게시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반대 의견님들의 감정적인 내용으로 게시판이 점점 그 기능이 변질되고 있다

〈표 1〉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게시판의 의견

작성자	내용	비고
염민철님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쉼터대회 촉구	부산서점님의 다수 적극 동참요구
김주황님	도서정가제 법안을 발의한 심재권 의원을 격려하는 글	부산서점님의 다수 호응
지방서점님	도서정가제 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서점인님의 다수 호응
동네서점님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반대 의견들에 대한 답변	비슷한 아이디로 서로 동조
동네책방님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반대 의견들에 대한 답변	장영수님 외 도서정가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피해 강조(대부분 감정적인 의견들이다.)	서점인님의 찬성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이 반론을 제시했지만 반대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이 다수가 독자(학생)들이어서 감정적인 의견싸움으로 확산
방문인님	게시판에 도서정가제 찬반 논쟁을 '참 재미있네요' 라는 제목으로 비난	호응은 얻지 못함
서점인님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반대 의견들에 대한 답변 특히 마일리지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다수 찬성 의견님들이 호응
서점주인님	'제대로 된 주장함시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무분별하게 감정적인 의견만 올리는 찬반론 의견들을 비난	호응은 있었지만 문제점 해결에는 미흡

고 지적했다. 결국 2003년 4월 30일 '아름다운 일(cafe.daum.net /bookstore1212)' 명칭의 카페를 만들고 카페를 만든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서런 홈페이지에서 탈출하자라는 글을 올리는 등 카페를 홍보하였다.

2) 문화관광부 게시판 분석

문화관광부 게시판은 반대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는 인터넷서점들이 문화관광부의 게시판을 네티즌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반대의견들이 모이게 된 것이다. 이는 게시판에 처음으로 올라온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이 바로 인터넷서점 YES24.com 대표이사의 글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문화관광부 게시판에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은 총 343건이 올라와 있다. 표 2 참조

<표 2>에서 보듯이 문화관광부 게시판을 살펴보았다. 문화관광부 게시판에는 몇몇 네티즌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찬반 논쟁의 지향점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이광희님처럼 도서정가제 찬성입자에서 반대 의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논리 있게 반박하는 진정 한 논객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네티즌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와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도서정가제에 대한 반대 및 폐지를 요구하는 감정적인 비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3) 심재권 의원 게시판 분석

심재권 의원 게시판에도 문화관광부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도서정가제 반대의견들이 쇄도를 하였다. 이런 여론 형성 또한 도서정가제 반대운동 초기의 인터넷 서점들이 도서정가제를 발의한 심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시켜 놓고 반대의견을 모으자는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 의원

게시판에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이 무려 504건이나 올라와 있다. 표 3 참조

심재권 의원 게시판은 앞에서 살펴본 두 게시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었다.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지만 IP 추적자님과 출판님과 같이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의견을 낸 네티즌도 적지 않다. IP 추적자님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가능한 추적기법을 사용하여 비양심적인 찬성 의견자를 찾아냈다. 이는 심재권 의원 게시판에 올라온 찬성 의견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의견형성자
(가상공동체)의 특징

우선 반대 의견자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소위 말하는 네티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책을 사는 소비자들로서 학생들이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의견자들도 다수가 있지만 도서정가제를 “인터넷서점이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정적인 반대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이는 자기가 의견형성자라는 인식보다는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밖으로 표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반대 의견자인 인터넷서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터넷서점은 위에 언급했듯이 반대의견을 주도한 의견 선도자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서점은 출판관련분야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또한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서점은 더 이상의 반대의견의 선도자가 될

<표 2> 문화관광부 게시板的 의견

작성자	내용	비고
박의선님	도서정가제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 제시	대다수들이 의견 적극 호응
사상현님, 무명님, 사이버님	“인터넷 활성화는 대세다. 인터넷서점도 이런 대세를 맞추어 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할인도 당연한 이야기다.”	사상현님, 무명님, 사이버님이 이광희님의 의견에 대해서 역시 논리 있게 반박
이광희님	위의 사상현님, 무명님, 사이버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논리 있게 반박	
인터넷서점님	“인터넷서점의 할인은 인정하되 무분별한 가격경쟁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다. 네티즌들은 책은 상품이기에 동시에 사회의 지식기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보다 인터넷서점들은 가격위주의 마케팅에서 탈피, 적절한 할인과 대고객 서비스 강화 등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고객들은 적절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출판사업의 기반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찬반 논쟁에 지향점을 제시 및 찬반 논쟁에 중립적인 역할
김명숙님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이 결합된 새로운 수익창출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서점님과 마찬가지로 찬반 논쟁의 지향점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현재 북새통이나 대형서점들이 시행하고 있는 모델로서 이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다수가 지적함
학생님, 이미선님, 서민님 등 다수	“학생, 청소년들은 감부가 아니다. 책값이 비싸서 사기가 힘들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글을 올리고 있는 학생들을 대표

수 없다. 이 또한 인터넷서점이 도서정가제에 대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주체가 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찬성 의견자들은 주로 오프라인 서점들과 출판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네티즌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는 이들의 인터넷 접근성이 반대 의견자들에 비해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서련에서 그 의견을 모았다. 이들의 특징은 반대 의견자들의 감정적인 의견에 비해 이성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과 자신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는 입장에서 찬성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찬성의견자들의 의견형성이 도서 정가제 시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찬성의견을 지속적으로 형성하였고 또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병폐 지적, 개선 요청의견 형성,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등 반대의견자들에 비해 그 의견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해결 및 종료 이후의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 작용

2003월 2월 27일 도서정가제 실행으로 사실상 사건은 종결되었다. 인터넷 상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보인 반대의견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런 반면 찬성의견은 위에 언급했듯이 인터넷 상의 여론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문화관광부라는 정부처의 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해결점을 보았다. 그런 사건해결 이후 인터넷 상에서 찬·반론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사건해결 이후 인터넷 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던 반대의견들은 많이 줄게 되었다. 도서정가제가 좋든 싫든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반대의견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어야겠다. 사건해결 이후 반대의견은 주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불평성에 대한 비판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책을 가장

많이 사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도서정가제는 악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반대의견을 적극 후원해 주던 인터넷서점들이 예전 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서점들은 도서정가제 내용을 공지하는 등 더 이상의 반대 의견 형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인터넷서점이 도서정가제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서점이 초기에 인터넷 상에서 여론형성 공간을 만든 것이 현재 네티즌이 도서정가제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고 여론형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찬성의견은 사건 해결 후 인터넷 상에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단지 그 의견내용이 좀 변했을 뿐이다. 찬성의견이 모인 한국서련 게시판에서 사건해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것은 바로 도서정가제 내용에 대한 불만이 나오게 된 것이다. 즉 도서정가제 시행령을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서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때문이다. 한국서련 게시판에는 인터넷서점의 마일리지 제도를 고발하는 내용의 의견이 올라왔다. 그리고 도서정가제 시행 후 단속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오프라인 서점을 고발하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출판**

정리 신동섭기자

<표 3> 심재권 의원 게시판의 의견

작성자	내용	비고
독서인님	각종 언론에 발표된 도서정가제에 대한 기사나 논평, 세미나 내용 등 도서정가제에 대한 내용을 제공	반대 입장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기사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퍼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숙희님, 도서정가제님	도서정가제를 발의한 심재권 의원을 직접 비난 도서정가제님은 재선에 대한 업포의 내용을 올림	"심재권 의원 측 도서정가제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는 식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답변을 함
IP추적자님	"속보 : 여태까지 도서정가제 추진하다 몸성한 사람이 없어요!" 라는 식으로 심재권 의원을 포함해 그동안 도서정가제를 추진해 왔던 정치인들을 비교는 식으로 비판	IP추적자님은 반대 입장을 새로운 방법으로했다는 것에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오는 의견들 중 한 사람이 이름만 바꾸어 계속 찬성의견을 올리는 것을 알아내서 이를 공개함으로써 찬성 의견자들의 비양심적인 면을 비난하였다.
출판인님	***서점(오프라인)이 소비자로 가장해 도서정가제 찬성 괴변을 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렇게 추적된 가짜 소비자가 수십 명이라고 꼬집기도 함 도서 출판의 전반적인 내용, 즉 오프라인서점과 인터넷서점의 도서 유통이나 책값의 구성 요소 등을 설명. 도서정가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도서관 살리기 운동 이나 어음거래 철폐문제가 도서 출판사업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	출판인님은 도서 출판사업에 있어서 도서정가제보다는 도서관 살리기 운동, 어음거래 철폐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